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체와 복식의 상징성 연구

윤 지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Symbolic Meaning of Woman's Body and Clothes in Fashion Works of Vivienne Westwood

Jiyoung Yun[†]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0월 6일), 수정일(1차 : 2008년 12월 21일, 완료일 : 2009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is a research on symbolic meaning and artist's will of Vivienne Westwood's works which provide a new vision on woman's body and clothes. For the literary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ories of human's body which are phenomenal body of Merleau-Ponty's, the relations between power and body of M. Foucault's, cultural and social body of E. Goffman's and habitus of P. Bourdieu's. For the case research, Vivienne Westwood's collections are classified into each item which exaggerating and distorting woman's body such as Mini-Crini, corset, bustle cushion, bum-pad, farthingale and tailoring suits. Also she puts man's clothes item such as codpiece into woman's body. Through all of these design, she wants to reinterpret the woman's body and self-identity. Vivienne Westwood dose not leave the past just as a historic trace but recreates with her way of creation. Westwood has presented the satire which leads the parody of past in her unique ways of thinking and interpretation which mix the ideology of the past and the presents. Those make her look back the history and culture and express her esteem for self-identity of woman. Vivienne Westwood's works express woman's power and freedom in modern society.

Key words: Vivienne Westwood, Phenomenal body, Self-identity, Habitus, Satire; 비비안 웨스트우드, 현상학적 인체, 자아정체성, 아비투스, 풍자

I. 서 론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 내적인 삶, 습관, 느낌, 이상, 신념, 열망 등에 형식을 부여한다. 또한 언어들이 일대일적인 기표와 기의의 대응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풍요로운 상징의 영역에 속하도록 전환시킨다(에코, 1976/1995). 특히, 예술작품 속 예술언어인 도상(icon)의 이미지 중 인체를 통한 상징적

표현은 창작가의 자아를 대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며 이 인체의 상징적 의미는 예술가의 내적 의지를 드러내는 가장 근원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창작가와 관조자 사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특히 패션 분야에서의 인체는 복식이라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되고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모든 창작의 시작점이 복식과 그것을 착장하는 인체에 있다. 인체와 그 인체 위에 입혀진 복식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은 형성되고 통용된다. 디자이너 Rei Kawakubo(1942~)

[†]Corresponding author

E-mail: garnet7124@hanmail.net

의 ‘인체가 복식을 착장하고 이는 다시 인체가 된다’라는 언급에서처럼 복식은 인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인체로 태어나게 한다. 나아가 패션은 Baudelaire(1821~1867)가 강조했듯이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것을 넘어선 이상적인 인체를 만들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표현(Svendson, 2006)하는 하나의 장(場)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인체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구속하고 왜곡시켜 풍자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Vivienne Westwood의 작품들을 통해 그녀가 인체와 복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하는 상징적 의미와 내적 창작의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Vivienne Westwood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녀 작품의 형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김길라, 2005; 염혜정, 1998)를 비롯하여 과거 역사 복식과 그림에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방수란, 1999), 문화적 현상과의 관계를 통한 연구(송수원, 2006; 이지선, 2007), 해체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김진환, 2000; 은영자, 김선혜, 2002), 다원적 절충주의 관점에서의 연구(배정민, 2005), 그리고 기호학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분석한 연구(장애란, 1998)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형태적 특성, 외적 영향 인자, 그리고 철학적인 측면을 통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하나의 패션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시각, 즉 여성의 인체와 제2의 인체인 복식의 관계 고찰을 통해 Westwood가 자신의 작품과 여성의 인체를 통해 전달하고자하는 창작가의 내적 예술의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인체와 복식이라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통해 복식이라는 대상이 하나의 현상학적이고 상징적인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현상학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인체에 대한 이론가들의 견해 고찰을 통해 인체와 이를 표현하는 제2의 인체로서의 복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둘째, 여성의 인체와 복식의 근원적 관계를 작품 창작의 가장 중요한 영감으로 취하고 있는 Westwood의 작품 속 상징적 아이টে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고찰되는 Westwood 작품의 상징성과 창작가의 예술의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패션 디자이너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 작용하며 창작가의 예술의지를 표현하는 복식과 이를 착장한 인체의 상징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상학적 예술인 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II. 현상학적 인체와 복식

M. Merleau-Ponty(1908~1961)는 인식의 중심에 인체를 위치시킨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인체에 위치하게 되고 소위, ‘신체적 도상(corporeal or postural schema)’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인체는 단순히 세상과의 외적 관계형성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능동적인 매개체인 것이다(Entwistle, 2000). Merleau-Ponty 인체론의 핵심은 주체와 대상의 공존으로 인간의 사유를 담고 있는 인체와 이를 통해 지각되는 대상은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사유와 이를 담은 인체는 공존하는 존재로 이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결국, Merleau-Ponty가 언급하고 있는 인체는 현상학적인(phenomenal) 인체로 이는 인체와 대상, 인체와 사유의 공존이 이뤄지는 하나의 장(場)이다.

Merleau-Ponty는 이런 현상학적 인체와 복식 사이 관계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인체는 우리의 자아와 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존재이나 복식을 착장한 인체는 이보다 더 시각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Entwistle, 2000). 즉 복식을 착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체에 대한 인식과 그 제시 방식에 대한 각 개인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체와 복식, 그리고 그 복식을 착장한 인체가 위치하는 시·공간을 비롯한 외적 요소들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복식은 마치 인체의 외피와 같이 인체 자신과 그 외의 것들 사이의 경계에 놓여지며 복식과 인체는 서로에게 상호간의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즉 복식은 현상학적인 인체를 만들어내고, 반면 인체는 복식에 생명감과 충만감을 부여하는 생동적인 장을 제공한다(Entwistle, 2007).

그러나 Merleau-Ponty는 성(gender)에 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철학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Merleau-Ponty의 현상학적 인체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성의 정체성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는 이론가들로는 M. Foucault(1926~1984), E. Goffman(1922~)과 P. Bourdieu(1930~2002)가 있다.

M. Foucault는 인체와 그것에 행사되고 있는 권력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은 정체체성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가능하게 했다. 즉 기존의 정체체성은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결과이며 권력이 인체에 개입되어 형성되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M. Foucault가 권력이라는 담론으로 인체를 고찰하고 있다면 E. Goffman은 인체와 그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인체를 바라보고 있다. E. Goffman에게 있어 인체는 자아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인체란 사회적 집단 안에 위치하고 사회가 만들어낸 코드화에 맞춰서 형성되며 이는 자아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한편 P. 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을 이끌어내는데 이는 자아를 담은 인체의 사회 속에서의 인식을 다루는 개념이다. 이 역시 사회적 계급이 개입된 개념으로 인체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고 위치 지워지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J. Entwistle은 그의 저서 『The Fashioned Body』에서 P. 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을 복식과 패션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 속에 대입시켜 해석하고 있다. 패션은 여성에게 그녀들의 아비투스, 즉 계급, 성별, 나이와 직업 등과 같은 삶의 경험이라는 문맥 안에서 그녀들의 선택이 적용되는 하나의 구조를 제공한다. 즉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복식이 남녀간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또한 성별의 차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복식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M. Foucault가 권력에 의한 수동적인 인체를 언급하고 있다면 P. Bourdieu의 관점에서는 복식을 창작한 인체는 능동적인 과정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복식은 인체와의 관계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문화적 창작물로서 존재한다. 인체와 인체 위에 착장되는 복식이라는 대상은 현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학적인 창작물로서 존재하며 이는 상징이 내재되어 있는 대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인체는 그 인체가 위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자아를 표출해내는 하나의 현상학적인 대상이며 이는 권력에 의해 또는 사회적 코드화에 의해 빚어지고 완성되는 대상이다. 특히 P. Bourdieu의 주장과 같이 한 개인의 아비투스에 의해 선택된 복식을 창작한 인체는 한 개인의 자아를 시각적으로 표출할 뿐만 아니라 복식을 통한 한 사회 속에서의 성의 역할과 그 재생산의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그 복식을 창작하는 능동적인 여성의 인체와의 관계를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Vivienne Westwood 작품을 고찰해 보고자 한

다. 복식과 이를 창작한 인체라는 상징적 대상은 창작가의 예술의지를 전달하는 의미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체와 그 인체 위의 복식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미지는 이를 창조한 ‘창작가’와 표현되어진 ‘창작가’ 그리고 ‘관조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하나의 상징적 의미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Westwood의 작품 속에 표현된 여성의 인체와 복식의 관계 고찰은 하나의 현상학적인 예술대상인 복식의 상징성을 통해 현 사회와 문화를 읽어내고 나아가 이를 창작한 디자이너의 예술 의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III. Vivienne Westwood 작품의 조형적 특성

Westwood는 여성의 인체와 옷의 관계를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9세기 여성의 인체를 구속하던 crinoline을 응용한 Mini-Crini, corset의 다양한 제시, 여성 hip을 강조하는 다양한 구조물, 테일러드 재킷을 통한 여성 인체미의 강조 그리고 남성의 성적 이미지 사용의 예시를 통해 Westwood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여성 인체의 강조

1) Mini-Crini

Vivienne Westwood 작품 창작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Mini-Crini 컬렉션(1985 S/S)에서의 tweed Mini-Crini는 과거 crinoline과 현대 미니스커트의 결합을 통해 과거 여성 인체에 대한 재해석의 시각을 보여준다. 과거 여성의 인체를 구속하던 복식의 아이템이 Westwood의 시각을 통해 여성의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재탄생한다. Westwood는 이 컬렉션을 시작으로 여성의 인체와 옷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를 시작하며 자신의 내적 창작의지를 드러내게 된다(사진 1). 이는 1980년대 당시 유행하던 여성 착장에서 남성스러운 스타일과는 대조를 이루는 스타일이었다(Wilcox, 2004).

Harris Tweed 컬렉션(1987 A/W)에는 배라시아(barathea) 원단을 사용한 Mini-Crini가 등장한다(사진 2). 원단의 재질과 색감으로 인해 좀 더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더하고 있으며 그녀의 대표적 아이템인 Rocking Horse shoes에 의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구속과 자유라는 상반된 개념을 현대의 시각으로 매합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1989년 A/W 컬렉션인 Voyage to Cythera에서는 Watteau (1684~1721)의 작품 'Harlequin and Columbine, 1716~1718' 속 복식의 형태와 패턴을 모방하고 있다(사진 3). 특히 그림 속 가면과 삼각형의 패턴은 Westwood의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전 시즌의 Mini-Crini에 비해 볼륨감이 커지고 화려한 느낌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Mini-Crini는 컬렉션의 전체적인 주제와 성격에 맞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 Corset을 통한 가슴과 허리의 강조

Harris Tweed 컬렉션의 Stature of Liberty corset은 18세기 corset에서 영감을 받은 Westwood만의 아이템이다(사진 4). 다음해 컬렉션인 Pagan I(1988 S/S)의 corset은 전 시즌의 것과 유사한 형태이나 네크라인 부분에 드레이퍼리 디테일을 첨가하여 더욱 더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5). Portrait 컬렉션(1990 A/W)에는 F. Boucher(1703~1770)의 작품이 프린트된 corset이 제시되고 있다(사진 6). 이처럼 과거 corset의 형태를 리바이벌하여 그녀만의 스타일로 제시하는 것은 1990년대 Westwood의 컬렉션에서 주요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된다. Time machine 컬렉션(1988 A/W)에서는 소매의 탈부착이 가능한 골드와 실버 색상의 corset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가미하고 있다(사진 7). Westwood는 Stature of Liberty corset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디테일, 소재, 패턴 등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Westwood 작품의 종합적 제시로 평가받고 있는 Dressing up 컬렉션(1991 A/W)에는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의 corset이 등장한다. Corset의 stomacher 부분에 비즈가 달린 줄무늬 원단을 사용한 작품, 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corset의 몸체와 소매를 결합시킨 작품, 그리고 corset의 형태를 크로셰(crochet)로 만든 작품 등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8). Always on Camera 컬렉션(1992 A/W)에서는 Gainsborough(1727~1788)의 작품을 프린트하여 사용하고 있다(사진 9).

3) Hip의 형태 변형과 부피의 강조

On Liberty 컬렉션(1994 A/W)과 Vive la Cocotte 컬렉션(1995 A/W)을 통해서는 bustle cushion, bum-pad, metal cage와 같은 인공 구조물의 착장을 통해 여성



<사진 1>
Mini-Crini,
1985 S/S



<사진 2>
Harris Tweed,
1987 A/W



<사진 3>
Voyage to Cythera,
1989 A/W



<사진 4>
Stature of Liberty corset,
1987 A/W



<사진 5>
Pagan I,
1988 S/S



<사진 6>
Portrait,
1990 A/W



<사진 7>
Time machine,
1988 A/W



<사진 8>
Dressing up,
1991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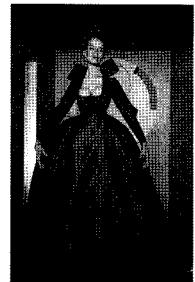
<사진 9>
Always on Camera,
1992 A/W



<사진 10>
On Liberty,
1994 A/W



<사진 11>
Vive la Cocotte,
1995 A/W



<사진 12>
Five Centuries Ago,
1997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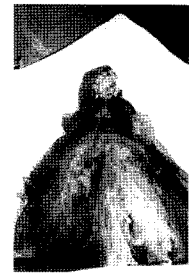
의 인체를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On Liberty 컬렉션에서는 특히 테일러링 착장의 스커트 부분에 bustle cushion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사진 10). 상의의 테일러링 재킷과 bum-pad를 사용한 착장을 통해 여성 인체를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체를 회화(戲畵)시키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hip을 강조하는 인공 구조물은 스커트 안에 착장하기도 하고 스커트 위에 착장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원단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Hip의 형태를 강조하는 인공 구조물의 착장은 다음해 컬렉션인 Vive la Cocotte를 통해서도 주요한 아이템으로 재등장하고 있는데 hip의 뒤를 강조하기도 하고 옆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실루엣을 통해 여성의 인체를 과장하여 왜곡하고 있다(사진 11).

Five Centuries Ago 컬렉션(1997 A/W)은 Elizabethan 시대와 Tudor 왕가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드레스 형태는 패셔너블한 Elizabethan 시대 실루엣을 닮아 있고 이는 언더스커트 혹은 farthingale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스커트의 볼륨은 플리팅과 duchesse satin과 같은 뽀뽀한 원단에 의해 더욱 더 과장되게 만들어지고 있다(사진 12). 이 컬렉션의 Hardwick Hall의 초상화 속 Elizabethan 시대 복식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 작품 또한 과장된 실루엣을 제시하고 있다.

Les Femmes 컬렉션(1996 S/S)의 'Watteau' 이브닝 드레스는 taffeta 원단이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Café Society 컬렉션(1994 S/S)에서도 1890년대에서 1910년까지의 여성들의 드레스 스타일의 과장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사진 13). Salon(1992 S/S), Anglomania(1993 A/W), Vive la Bagatelle(1995 A/W), Tide to the Mast(1998 S/S) 컬렉션을 통해서도 Farthingale의 사용을 통한 거대한 부피의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사진 14).



<사진 13>
Les Femmes,
1996 S/S





















<사진 14>
Salon,
1992 S/S

4) 테일러드 재킷을 통한 여성 인체미의 강조

Westwood는 테일러드 수트, 특히 테일러드 재킷의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여성 인체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예술의지를 표출하는 아이템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표 1>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듯이 Westwood는 다양한 디자인의 재킷을 발표하고 있는데 각각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영국의 남성 맞춤복을 대표하는 유명한 거리인 Savile Row의 테일러링 전통 기법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디자인한 짧은 기장의 더블 브레스트 재킷인 Savile jacket은 여왕이 소녀일 때 입었던 princess coats로부터 형태적 특성을 가져왔으며 곡선의 칼라와 포켓의 플랩(flaps) 부분은 담비털과 유사한 벨벳으로 장식되어 있다. 한편, Voyage to Cythera 컬렉션 속 Harris Tweed 원단의 'Savile' 재킷은 과거 남성복의 착장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며 이는 성 정체성에 대한 Westwood만의 해학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여성의 복식에 정교한 테일러드 남성 재킷을 적용하여 여성스러움의 극대화를 추구한 Christian Dior의 재킷을 모방한 작품들 또한 Westwood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Westwood는 Dior의 전통적인 남

〈표 1〉 Vivienne Westwood 컬렉션 속 Tailored Jacket

Savile jacket Harris Tweed 1987 A/W	Savile jacket의 응용 Voyage to Cythera 1989 A/W	Bettina jacket -Dior jacket 모방 Grand Hotel 1993 S/S	Bettina jacket -Dior jacket 모방 Anglomania 1993 A/W	Metropolitan -Dior jacket 모방 Vive la Cocotte 1995 A/W	Amphora jacket -Dior jacket 모방 Dressed to Scale 1998 A/W
					
Watteau jacket Storm in a Teacup 1996 A/W	DL jacket Portrait 1990 A/W	Breenish Tweed Portrait 1990 A/W	Power jacket On Liberty 1994 A/W	Pourpoint jacket 재단법의 응용 Vive la Cocotte 1995 A/W	Love jacket Harris Tweed 1987 A/W
					
Pagan I 1988 S/S	Miss Marple suit Time Machine 1988 A/W	Gold Label 1999 A/W	Booze jacket Summertime 2000 S/S	Box jacket Nymphs 2002 S/S	Witches jacket Witches 1983 A/W
					

성의 재단 방식을 여성복에 적용시킨 방식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의 모사를 통해 여성의 자유와 권위를 표현하고자했다. Grand Hotel 컬렉션에서의 1950 jacket 또는 Bettina jacket은 얇은 회색 울 원단의 싱글 브레스트 재킷으로 Westwood는 커다란 포켓 플랩을 통해 힙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의 대각선 턱(tuck)을 사용해 칼라를 만들고 또 다른 턱은 포켓에 의해 숨겨지는 등, 이러한 방법을 통해 Dior 실루엣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있다. Anglomania 컬렉션에서는 Bettina jacket을 tartan check 원단을 사용해 제시하고 있다.

Westwood는 Vive la Cocotte 컬렉션의 Metropolitan 재킷과 스커트의 착장이 Dior의 작품을 모방하고 있

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의 훌륭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재해석할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Westwood는 기술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자신만의 기술을 형성하게 되며 그녀 역시 전에는 시도된 적이 없는 실루엣을 결국에는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부드럽고 견고하게 테일러링 되어있어 토르소를 부드럽게 감싸는 재킷에서부터 corset의 구조, 하이힐에 의한 개조된 자세, bustle, crinoline 혹은 몸을 속박하는 수트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Dressed to Scale 컬렉션의 Amphora 재킷은 밝은 회색의 스트레치 울을 소재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은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가진 재킷이다. 이는 Metropolitan 재킷을 과장한 스타일로 커다란 라펠을 토르소 전체를 덮고 있으며 커다란 단추가 달려 있다(Wilcox, 2004).

Storm in a Teacup 컬렉션의 브라운 chalk 스트라이프 원단의 Watteau 재킷과 펜슬 스커트는 Westwood 가 전에 제시했던 Bettina 재킷의 sack-back 형태의 또 다른 변형 구조를 가진다. Portrait 컬렉션의 DL 재킷은 18세기 초상화인 'The Boy with a bat: Walter Hawkesworth Fawkes' 속 복식을 모방하고 있으며 이는 18세기 Pierre Choderlos de Laclos(1741~1803)의 동명 소설에 근거한 1988년 영화 'Dangerous Liaison'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Portrait에서 Breenish Tweed 수트의 재단법은 1810년대 앞 기장이 짧은 재킷의 영향을 받았다. Westwood는 세로 방향의 chalk stripes를 활용하여 길고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Wilcox, 2004).

On Liberty 컬렉션의 Power jacket은 더블 브레스트 재킷으로 같이 착장하는 스커트 역시 cushion bustle이 첨가된 형태로 이는 19세기 후반의 실루엣을 응용하고 있다. Vive la Cocotte 컬렉션 역시 테일러링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캐시미어 수트와 이브닝 드레스를 포함한 몇몇 옷은 pourpoint jacket(Calabisetta, 1998)의 재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Pagan I 컬렉션에서는 앞부분은 토르소 기장이며 뒷부분은 허리선까지만 내려오는 앞과 뒤가 다른 기장의 재킷과 개더 플리츠가 풍성하게 잡힌 미니스커트로 구성된 착장이 대표적인 룩을 이루고 있다. Time Machine 컬렉션에서는 check, harris tweed로 만들어진 'Miss Marple' 수트를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착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는 가발과 모피 모자와 함께 착장되었다. 1999년 A/W 컬렉션인 Gold Label에서는 Amphora 재킷의 디자인과 check 원단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디자인과 소재의 다양

한 결합은 Westwood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2. 남성의 성적 이미지

Voyage to Cythera에서는 Harris Tweed 원단의 Savile row style 테일러 재킷, 밝은 색상의 니트 타이즈 혹은 레깅스와 이와 함께 입는 셔츠로 구성되어 있는 착장이 가장 주목받았으며 라이크라(lycra) 소재의 누드 타이즈는 녹색의 무화과 나뭇잎이 달려 있고 흰색의 셔츠와 로고가 새겨진 풀어져 있는 타이와 함께 착용되고 있다(사진 15). 이는 마치 바지를 입지 않고 상의만을 걸친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며 과거 남성들이 재킷과 몸에 꼭 끼는 타이즈 형식의 바지를 입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principal boy' 룩은 언론에 의해 주목을 받았으며 곧 패션의 주류가 되었다. 또한 Pagan V 컬렉션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브리프(briefs) 형태의 하의를 입고 있는 작품의 경우 하의에 프린트된 남성의 성기가 시선을 자극한다(사진 16). 이들 작품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착장을 여성이 입을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

15세기 남성의 반바지 가량이 부분에 댔던 작은 주머니 모양의 부착물인 codpiece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며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던 것으로 Westwood의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Cut, Slash & Pull(1991 S/S)에서는 codpiece의 형태를 마치 꽃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부착시키고 있으며 On Liberty에서는 모피를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있다(사진 17-18). Dressing up 컬렉션에서는 corset과 같은 소재의 가죽 원단을 사용한 codpiece를 스커트에 부착시켜 장식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컬렉션인 Red Label(2008 A/W)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속옷을 입은 여성 모델이 등장하여 성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사진 19).



<사진 15>
Voyage to Cythera,
1989 A/W



<사진 16>
Pagan V,
1990 S/S



<사진 17>
Cut, Slash & Pull,
1991 S/S



<사진 18>
On Liberty,
1994 A/W



<사진 19>
Red Label,
2008 A/W

IV. Vivienne Westwood 작품의 상징성

1. Vivienne Westwood 컬렉션 속 인체와 복식 분석

<표 2>는 Westwood 작품 속 인체와 복식의 관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상징적 아이템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Westwood 작품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추이를 고찰할 수 있다.

Mini-Crini는 corset과 같이 착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980년대 후반기 컬렉션에 주로 등장한다. 반면 corset은 다양한 아이템과 결합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컬렉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Dressing Up 컬렉션을 통해서서는 다양한 재질과 변형된 형태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가죽으로 만들어진 corset과 codpiece의 결합은 Westwood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특성을 보여준다. 여성의 hip을 강조하는 디자인은 1990년대 전반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3년과 1994년 컬렉션을 통해 최고점에 이른다. 특히 On Liberty, Café Society와 Vive la Cocotte 컬렉션을 통해서서는 hip의 과장을 극대화시켜 여성의 인체를 풍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고정된 시각과 사회적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Vive la Cocotte 컬렉션은 17세기 고급 매춘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Westwood의 인체의 과장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한 컬렉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인공적인 구조물을 사용하여 스커트의 부피를 강조한 실루엣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테일러드 수트 디자인의 경우 스커트 부분에 hip을 강조하는 인공 구조물을 착장시켜 하나의 착장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표출하고 있다. 1995년 Storm in a Teacup 컬렉션에서는 전통적인 영국 남성복에 대한 그녀만의 혁신적인 해석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Westwood는 전통적인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와 여성 인체의 결합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남성의 테일러드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의 경우는 Westwood 컬렉션의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왕의 재킷의 형태를 응용한 작품,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착장할 수 있는 재킷, 과거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재킷을 모사한 작품, 그리고 Dior의 작품으로부터 재단과 형태를 가져온 재킷 등 다양한 외부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제시

되고 있다. 이들은 클래식한 형태와 구성을 통해 여성의 인체를 감싸고 있지만 Westwood만의 독특한 해석 능력을 통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Westwood만의 재해석 능력은 codpiece라는 남성의 성기를 강조하는 과거의 복식 아이템을 통해 극대화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전반기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다가 최근의 컬렉션을 통해 다시 등장하고 있다.

2. Vivienne Westwood 작품 속 인체와 복식의 상징성과 예술의지

Vivienne Westwood는 Victorian 시대 여성의 복식, 특히 crinoline과 corset에 매력을 느꼈으며 이들은 과거 복식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을 상징한다. Westwood는 역사 속 여성들의 행동을 구속하던 아이템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미의 기준과 고정 관념을 풍자하고 있다. 작품 창작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는 'Mini-Crini'는 과거 여성의 인체를 구속하던 crinoline과 20세기 여성의 자유를 상징하는 미니스커트를 결합시킨 것으로 드러냄과 감춤의 미학을 융합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성적 어필과 부조리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자유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Westwood는 영국적인 전통, 문화, 그리고 품위에 대한 그녀만의 해석과 풍자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전통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디자이너들, 예를 들어 Georgina Godley(1955~)와 Rei Kawakubo(1942~)가 왜곡과 강조를 예술적 형태로 제시했지만, Westwood의 의도는 현대 여성의 인체에 대한 이상형으로서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호리호리함에 대한 비판이다. 그녀는 여성을 일종의 예술적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Wilcox, 2004). Westwood의 이러한 사상은 과장되고 왜곡된 그녀의 복식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여성들의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인체를 남성의 인체와 병치시켜 여성의 위치와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Westwood 자신의 권위와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Westwood는 '나는 crinoline과 같이 결코 개발되지 않은 일종의 생명력을 가진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수용하다. 아이디어는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무엇이지만 이는 당신이 하는 대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표 2> Westwood 컬렉션 속 인체와 복식의 관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상징적 아이템

	Mini-Crini	Corset	Bustle Cushion	Farthingale	Tailored Jacket	Codpiece
*Mini-Crini 1985 *Harris Tweed 1987						
*Pagan I *Time Machine 1988						
*Civilizade *Voyage to Cythera 1989						
*Pagan V *Portrait 1990						
*Cut, Slash & Pull *Dressing Up 1991						
*Salon *Always on Camera 1992						
*Grand Hotel *Anglomania 1993						
*Café Society *On Liberty 1994						
*Erotic Zones *Vive la Cocotte 1995						
*Les Femmes *Storm in a Teacup 1996						
*Vive la Bagatelle *Five Centuries Ago 1997						
*Tied to the Mast *Dressed to Scale 1998						

이는 그녀의 과거와 역사 수용의 방식과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역사와 문화의 수용에서 현대적 문맥에 맞는 자신만의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Wilcox, 2004). Westwood는 복식의 과장과 확대를 통한 인체의 실질적인 형태와 크기를 확장시켜 과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위업과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복식 중 여성의 행동과 사교를 제한하던 corset과 bustle의 아이템은 Westwood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데 그녀는 이를 현대적 상황에 적용시켜 그녀만의 취향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과 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풍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계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과 놀라움을 자아내고 이를 통해 마음의 경쾌함과 해방감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Westwood는 인체를 과장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Five Centuries ago에서는 Elizabethan 시대의 복식을 모사하고 있는데 당 시대의 복식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부피감이 크고, 과장된 옷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Westwood는 역사의식과 영국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 Café Society에서는 여성의 인체를 우아하고 기품 있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여성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Five Centuries ago와 Café Society 컬렉션이 복식의 전체적인 공간과 크기 확장을 통해 숭고미를 표현하고 있다면 On Liberty와 Vive La Cocotte는 여성 인체의 부분 확장을 통한 숭고미를 드러내고 있다. On Liberty의 Power jacket의 경우 어깨와 힙 부분에 패딩을 넣어 여성의 인체를 왜곡하고 강조함으로써 현대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적용되고 있는 획일화된 시각을 비판하고 여성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Westwood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Vive La Cocotte는 그녀의 인체의 과장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극에 달한 컬렉션으로 corset, bustle, crinoline, 테일러드 재킷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Westwood는 여성의 인체와 자신의 작품의 결합을 통해 여성의 인체와 성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남성들의 시각을 비판하고 있으며 과거 성적 어필과 부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corset, crinoline과 같은 대상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촉구하는 그녀만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컬렉션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지나치게 과장된 여성의 가슴과 hip의 표현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풍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아닌 새로운 여성주의의 권

력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19세기의 남성복을 여성복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Voyage to Cythera의 'principal boy look'은 마치 하의는 입지 않고 나뭇잎으로 성기 부분만을 가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전통과 품위에 대한 패러디이며 여성들의 성적 자유에 대한 열정과 그로 인한 모순을 풍자하고 있다.

3. Vivienne Westwood 작품 속 현상학적 인체와 복식

Westwood 작품에는 여성의 인체와 그 인체를 좀 더 시각적으로 각인(刻印)시키는 복식이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그녀의 작품을 착장한 인체는 Merleau-Ponty가 언급하고 있는 현상학적 존재로서 현대 사회 속 여성의 정체성과 위치를 반영하는 하나의 능동적인 매개체로 존재한다. Westwood 작품의 의의는 이런 현상학적인 인체와 복식의 관계를 그녀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인체와 복식은 앞서서도 언급했던 이론가들의 시각에서처럼 권력에 의해, 사회의 구조에 의해 그리고 아비투스라는 개개인의 취향에 의해 적용되고 변화하고 진화되어왔다. 그러나 Westwood의 시각을 통해서서는 여성의 인체와 복식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위치한다. Westwood의 사고의 전환은 남성 중심 문화와 시각 속에서의 여성성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Westwood는 사회적 시각에 의해 고정되어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여성을 구속하던 복식의 아이템이 여성의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적 대상이 되고 자신의 복식을 통해 여성의 이상적인 인체미를 변형시켜 시대와 사회가 적용시키고 있는 '미와 추'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또한 남성이라는 기존 권력의 중심 영역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유한 상징적 대상을 여성의 복식으로 가져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남성에 대한 도전이며 그들의 시각에 의해 가치를 평가받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Westwood를 비롯한 여성들의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Westwood 작품의 가치는 다양한 경계 파괴 시도에 있다. 자신의 작품을 착장한 여성의 인체를 통해 사회가 적용하고 있는 관념의 경계를 파괴하고 미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성 정체성의 경

계까지 넘나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을 창작한 여성은 기존 사회와 문화가 적용하고 있는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특히 남성의 시각에 의해 가치를 평가받는 여성이기를 거부한다. 그녀들은 자신의 인체와 복식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창조해낸다.

V. 결 론

Vivienne Westwood의 옷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 정체성을 느끼게 하며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과거 여성의 인체를 구속하고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한 복식의 요소들은 Westwood의 작품을 통해서 더 이상 여성을 구속하거나 남성의 시각에 의해 좌우되는 성적 대상이 아니다. Westwood는 여성의 존재감을 감추지도 속박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과장시키고 회화시키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의 존재감은 항상 영국이라는 그녀의 국가적 정체성 안에서 존재한다. 영국이라는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 속에서 존재하는 여성 또한 권위와 힘을 가진 여성으로서 존재한다. Westwood의 옷은 영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경심과 여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Westwood의 옷을 입은 여성들은 자신감 있는, 때로는 장난스러운 또는 우아한 모습을 드러낸다. Westwood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창조하고 과장되게 만들어 현 사회 속의 여성의 모습과 그 여성들이 꿈꾸는 환영 속의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있다. Westwood의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사실에 항상 구속을 받고 있다. 여성의 성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를 과장하고 왜곡시키거나 행동을 구속하는 착장, 또는 남성의 복식을 착장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게 되며, 이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굴레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들은 항상 자신감으로 넘쳐난다. 여성으로 존재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이를 즐기고 있다. 또한 이는 항상 영국의 전통성 안에서 존재한다. 이것이 그녀의 여성들을 경박하지 않고 우아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이는 그녀들의 자아 존재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Westwood가 자신을 디자이너로 인정하기 시작할 시점부터 그녀의 작품에는 그녀 자신의 자아가 배어 나오고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끊임없이 변형시

키고 표현하며 창조해내고 있다. 이를 통해 Westwood와 그녀의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녀들의 위치를 향유하게 된다. 사회 속에서 부여되는 이미지로 존재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사회 속 고정관념을 넘어선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권위를 가진 여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Westwood의 옷을 입은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에 충만한 여성들이다.

Westwood의 옷은 여성의 꿈을 담아내고 있다. Westwood의 옷을 입고 그녀들은 과거로 돌아가 그림 속의 우아한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왕이 되기도 하며 팜므 파탈(femme fatale)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그녀들은 남성들의 착장을 즐기며 남성들의 정체성을 비웃기도 한다. 또한 남성들의 시선을 비웃으며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뽐내고 과장시키며 왜곡시킨다. 이처럼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여성들의 꿈과 욕망의 표현으로서의 Westwood의 옷은 여성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성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된다. Westwood는 여성을 여성 자신과 남성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 그녀의 옷은 여성들을 구속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들은 이를 통해 해방감을 만끽한다.

참고문헌

- 김길라. (2005). *비비안 웨스트우드 디자인 연구: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환.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DECONSTRUCTION 표현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수란. (1999).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 연구. *한국 가정과학회지*, 2(1), 129-141.
- 배정민. (2005).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다원적 유희주의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수원. (2006).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영국적 이미지. *복식*, 56(2), 1-16.
- 에코, 움베르토. (1976). *열린 예술작품*. 조형준 옮김 (1995). 서울: 새물결.
- 염혜정. (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37, 71-88.
- 은영자, 김선혜. (2002).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과학논점*, 28, 99-110.
- 이지선.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앵글로마니아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애란. (1998). 핑크록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 197-215.
- Calasibetta, C. M. Ph.D. (1998). *Fairchild's dictionary*. New

York: Fairchild Books.

Entwistle, J. (2000). *The fashioned body*. Cambridge: Polity Press.

Entwistle, J. (2007). The dressed body. In L. Welters & A. Lillethun (Eds.), *The fashion reader* (pp. 93-104). Oxford

New York: Berg.

Svendsen, L. (2006). *Fashion: A philosophy*. London: Reaktion Books.

Wilcox, C. (2004). *Vivienne Westwood*. London: V & A Publications.